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1. 30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국정과제운영과 과장 이복원 / 사무관 조수향 (Tel. 044-200-2486)
* 엠바고 : 11.30(수) 15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 * 모두말씀 : 별도배포			

서민·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내실화 해야

- 황 총리, 서민 금융 지원 추진상황 점검, 현장의견 청취 및 발전방향 논의
-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30일(수) 오후 신한은행 충정로점(서울 서대문구 소재)을 방문하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「서민 금융부담 완화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.

-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 상담자와의 현장 면담을 통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상품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,
- 은행,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, 서민금융 이용자와 함께 실효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* (참석) ① 금융회사 (조용병 신한은행장,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),
 ② 관계기관 (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, 최종구 서울보증보험 사장),
 ③ 관계부처 (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,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),
 ④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(구정환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실장, 사잇돌 대출 이용자 등)

□ 황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확대되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,

-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꾸준한 관심을 갖고,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.
 - 앞으로도 정부, 공공기관, 민간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오늘과 같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,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.
- 그간 정부는 국정과제인 「서민 금융부담 완화」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.
- 햇살론·미소금융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및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, 상환능력·의지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.
 -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을 원스톱·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.
- 또한, 서민·소외계층 금융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특히, 12월을 “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”로 정하고, 현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(붙임) 1. 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
 2. 주요 서민·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

참고 1

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

1 서민 정책금융 확대

- (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)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·저신용층에게 보증지원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 공급

구분	햇살론('10.7월)	새희망홀씨('10.11월)	미소금융('08년)	바뀌드림론('08년)
지원 대상	저소득저신용자 등	저소득저신용자 등	저소득·저신용 자영업자·창업예정자	고금리 채무자
취급 기관	서민금융진흥원, 저축은행 등	시중 은행	서민금융진흥원	서민금융진흥원, 시중 은행 등
이율	연 10.5% 이내	연 10.5% 이내	연 2~5.5%	연 10.5% 이내
특징	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대출 대한 대출 등 지원	시중 은행권의 서민 우대 상품	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·운영자금 등 대출	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지원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

- (법정 최고금리 인하) 「대부업법」 개정('16.3.3 시행)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.9% → 27.9%로 인하

2 채무조정

- (개요)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(국민행복기금)을 통해 운영

구분	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, '02년~)		국민행복기금(진흥원, '13.3월~)
지원 내용	프리워크아웃	개인 워크아웃	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(한시적·일회적 채무조정)
조정 대상	「신용회복지원협약」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		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
지원 대상	1~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	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	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·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

- (맞춤형 채무조정) 채무자의 상환능력·의지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인 지원 강화

*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~60%로 탄력적 적용하고,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최대 감면율을 70%→90%로 확대

③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

- (개요)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,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
 - 시장원리에 따라,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득·중소득 서민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로 대출
 - * 새희망홀씨의 경우,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
- (주요내용) 중·저소득층을 대상으로, 보증보험(서울보증보험)과 연계*하여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
 - 은행(7.5~) 및 지방은행(9.1~), 저축은행(9.6~)에서 출시, 평균 대출 금리는 약 6~19%대 수준
 - * 일반 시중은행 금리 : 약 1~5%대, 대부업체 금리 : 약 20%대

④ 원스톱·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(9.23)

- (설립목적) 미소금융·햇살론·국민행복기금 등을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
 -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
- (주요업무)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(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을 통해 현장에서 원스톱·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
 - 진흥원, 신복위, 캠프 등의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
 - 지자체, 고용·복지*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, 취업지원,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
 - 서민금융 이용자별 이력관리·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 비교 평가,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

참고 2

주요 서민·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(금융위)

	주요 내용	추진 실적
1단계 서민금융 지원강화 ('15.6.23.)	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(햇살론·미소금융 등)	연 4.5조원 → 5.7조원으로 공급(목표) 확대
	법정 최고금리 인하 (34.9% → 27.9%)	최대 330만명, 총 0.7조원 이자부담 경감
	서민금융진흥원 출범 (서민금융 컨트롤타워)	미소금융·햇살론·바꿔드림론 통합 → '16.9.23일 진흥원 출범
2단계 채무조정 지원강화 ('16.1.28.)	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[신복위·행복기금 최대 원금감면율 50% → 30~60%]	연 약 7.6만명, 1,74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
	상환능력 결여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(원금감면율 최대 90%)	연 약 0.4만명, 총 28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
	은행권 공동의 '신용대출 119' 도입 (연체우려 고객 사전 안내·지원)	연 5.3만명의 연체 예방 효과
3단계 채무조정 채권추심 개선 ('16.9.26.)	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	미소드림적금 약 2천건 지원 소액신용카드 3.3만장 발급
	불법·과도한 채권추심 예방	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→ 1일 2회까지 채권추심 허용
카드수수료 인하	영세·중소가맹점 0.7%p, 대형 약 0.3%p 인하 (영세: 1.5 → 0.8%, 중소: 2 → 1.3%)	가맹점 수수료 부담액 연 약 6,700억원 경감
사잇돌 대출 출시	은행·저축은행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(총 1조원 한도, '16.7월~)	총 2.5만명, 2,562억원 지원 실시